“핵·미사일 동결→핵 완전폐기” 2단계 해법 공감대 주목

文 대통령 꺼내 든 ‘북핵 로드맵’… 한미 ‘공동방안’ 도출할까

“전략적 인내 실패” 인정… 대화-제재로 北 협상테이블 견인

대북정책 구상 트럼프와 동일… 워싱턴내 ‘대화론’ 약화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북핵 해결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방송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우리는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단언한 뒤 ▲북한이 현행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는 2단계 접근법을 북핵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와는 다른 구상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풀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2단계 접근법은 일단 북한이 추가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기조를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있고, 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공조에 균열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의 사망으로 워싱턴 내에서 대화론이 설 자리가 크게 좁아졌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과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경우도 ‘올바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 보조를 맞춰 제재와 압박 수단도 풀가동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다고도 했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응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개성공단 재개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한 진전을 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대 관심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접근방식을 포괄하는 ‘공동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다. 각각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양국 정부가 일치된 인식과 전략을 갖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대화와 압박전략에 있어 역할분담을 하고 중국이 의장을 맡고 있는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한다면 북한을 상대로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양국 외교가의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취재진에 답하는 문정인 특보 한미군사훈련 축소 등 ‘워싱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있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가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울한 현실… 지나왔던 길을 되짚어보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188) 보리밭

지난 4월 직원 단합대회를 위해 다녀온 고창 청보리밭이 하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다시 찾았더니 어느덧 수확을 앞둔 6월 황금빛으로 너울져 있었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청보리 물결이 무한한 지평선 끝으로 사라지고, 밭 너머 저편 유채꽃밭이 겹쳐 얼마나 황홀경이었던지.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마시며 보리밭을 관광자원으로 일군 농장주의 혜안에 감탄했었다.

우리 문학 속에서 에로틱한 서정 혹은 가난의 상징인 보릿고개 등의 이미지로 등장하곤 했던 보리밭은 화가들에게도 중요한 소재였다. 황량한 보리바다를 아무도 그림으로 그릴 생각을 하지 않던 시기에 보리밭과 밀밭을 번갈아 그렸던 빈센트 반 고흐의 보리밭은 삶에 지친 화가에게 무한과 영혼의 의미로서 위안을 준 풍경이었다.

보리밭 배경의 자화상을 남긴 장욱진(1917~1990)에게 보리밭은 어떤 의미였을까? 일명 ‘보리밭’으로 알려진 화가의 ‘자화상’(1951년 작)은 6.25전쟁 중 고향인 충남 연기군에 피난 가 있을 때 제작한 작품으로 화가는 암울한 현실을 그림으로 극복하려 했다.

때는 이즈음이었을 것이다. 하늘엔 오색구름이 떠있고 그 사이를 나는 새들, 황금 물결 이는 보리밭 사이를 걷는 신사와 그를 따르는 강아지. 농촌 풍경과 동떨어지게 보이는 완벽한 정장을 한 신사는 어디를 가는 것일까. 아니 어쩐지 보리밭 사이로 난 지그재그 붉은 길로 인하여 신사가 가게 될 행선지보다는 그 신사가 지나왔던 길을 되짚어 보게 하는 그림인 것 같다. 그림 속을 따라 걷고 싶게 한다.

장욱진 작 ‘자화상’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동심의 상상력과 친근한 평온함으로 따뜻한 미술을 추구했던 화가는 줄곧 삶과 자연이 합일을 이루는 도교적 세계를 보여주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화가를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전시, 심포지엄 등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문정인 특보 “학자로서 한 얘기… 문제 없어”

文대통령 “문특보 발언 개인 견해 … 연합훈련 축소 고려 안해”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 특보는 21일 방미 기간 논란을 빚은 ‘발언’을 두고 “학자로서 얘기했을 뿐 이게 큰 문제가 되나”라고 말했다.

연세대 특임교수인 문 특보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술회의에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왜 이 모양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문 특보는 16일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발언 책임’에 대한 물음에 “나는 특보지만 교수가 내 직업이고 대통령에게는 자문(조언)을 해주는 것”이라며 “내 자문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 분(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특보는 ‘청와대와 발언을 사전에 조율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다”며 언성을 높이는 등 날선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도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연합훈련 축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 CBS방송의 ‘디스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을 통해 문 특보의 발언을 접했지만, 문 특보는 비공식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는 학자로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조언이 필요할 때 특정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낸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충분히 신뢰와 우정의 관계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오는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과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쭈~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 금 환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3일 북큐슈 298,000원 부터
4일 북큐슈 · 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북큐슈 3일 498,000원 부터
큐슈 · 야마구치 3일 598,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북큐슈 4일 598,000원 부터
큐슈 · 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30,000/인)

다낭 한국국적 티웨이항공
아름다운 해변의 백사장과 밤하늘의 낭만이 춤추는
베트남 다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친 美親 초!! 특가
5일 399,000원 부터
6일 399,000원 부터
부산 출/도착
◆상 품 특 전 : 투본강투어[목공예마을+도자기마을], ICE 커피 한잔, 열대 과일, 발 마사지 60분[팁 별도], 노니비누 1개/인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차량, 일정표 상의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 가이드, 여행자보험, 스톤 마사지 1시간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 경비($50/인-5일, $60/인-6일) ※성인, 아동 동일 현지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